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기대하며

『희망세상』에 실린
‘기념관’ 관련 연재
물을 꼼꼼히 읽어 본

사람 중의 하나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기보다 조금은 생소한 분야라 읽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것저것 살펴보다 ‘민주화운동기념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중에 나는 지난 가을,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생각해보니 히로시마에는 ‘평화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희망세상』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니 기념관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평화기념관은 왼쪽에 피폭당한 쓰라린 기억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일본인의 전쟁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희망세상』을 통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4·19혁명부터 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화는 수 많은 이들의 희생과 상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러한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기념하고 기억해 줄 진정한 우리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회사원, 조승우)

생소한 ‘민주화’를
알게 돼

초등학교 5학년인
딸 아이와 함께 가끔
도서관에 간다. 그날

도 이 책 저 책을 둘러보다 다른 잡지와 함께 놓여진 『희망세상』을 발견했다. 많은 잡지의 난립 속에서 처음 보는 잡지에 손이 가는 건 너무도 당연했다. 어떤 책일까 궁금한 생각에 속지를 들쳤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읽었다.

‘민주화’, ‘운동’, ‘투쟁’ 이런 단어들은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희망세상』에는 나처럼 관계 없는 사람이 읽어도 좋을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말로만 듣던 노동자 전태일의 어머니가 이런 분이었구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어머니를 변화시키기도 하는구나 생각하니 자식을 둔 부모로서 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 함께 도서관에 간 딸 아이는 내가 읽던 『희망세상』을 보고 어떤 책이냐며 물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대한 좋은 책이라고만 알려줬다. 초등학생인 딸 아이가 읽기엔 아직 힘든 내용이라 중학생이 되면 꼭 읽어보라고 말을 했다.

‘민주화’란 말이 생소한 나같은 소시민에게 『희망세상』은 실제로 ‘희망세상’을 알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주부, 김은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8 팩 스 : 02-3709-7530 이 메 일 : stonsock@kdemo.or.kr